“교과서에서 접한 5·18…직접 보니 실감나요”

광주 치평초 6학년 67명 ‘오월 버스’ 탑승

5·18기록관·전일빌딩245·민주묘지 탐방

전시·총탄 흔적 등 확인…영령 앞 헌화도

내달 29일까지 3천여명 체험학습 예정

15일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 67명이 광주시교육청 지원으로 ‘오월 버스’를 타고 5·18 사적지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왼쪽), 국립5·18민주묘지에선 오월 영령에게 헌화했다. /이연상 기자

“저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공부를 잘 해서 오월 정신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15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 정문 앞에 나란히 선 버스 2대에 치평초 6학년 학생 67명이 탑승했다.

이 버스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실 밖에서 오월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오월 버스’다.

버스에 오른 학생들은 친구들과 “교과서에서 배운 곳 가는 거야?”, “나는 ‘망월’ 만화도 읽었어!”라며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처음으로 도착한 목적지는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었는데, 들뜬 상태였던 학생들은 이곳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와 1980년 5월 광주에서 열흘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무자비한 계엄군과 총·칼에 희생된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전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인상 깊은 장면들을 기록해 나갔는데, 일부는 직접 만들었다는 ‘5·18 취재수첩’을 꺼내 들어 보이기도 했다.

기록관 관람을 마친 후에는 전일빌딩245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헬기 사격의 증거인 총탄 흔적을 확인하며 “그 때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고 너도나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빌딩 옥상에선 가두 시위가 벌어졌던 충장로와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일대를 내려다보며 당시 긴박했을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몇몇은 현장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상황극을 펼치기도 했다.

오전 내내 기록과 현장을 따라간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민주의 문 앞에서 국화를 한 송이씩 든 학생들이 추모탑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묘역 일대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추모탑 앞에 도착한 후에는 6명씩 줄지어 서서 차례대로 헌화했고 묘역으로 이동했다.

열사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진지한 표정으로 듣던 학생들은 자신들보다 어린 초등학교 4학년 때 세상을 떠난 고(故) 전재수군의 묘역 앞에선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율(13)양은 “5·18 당시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이곳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교과서에서만 봤던 열사들의 묘지를 직접 마주하니 믿기지 않으면서도 더 실감났다”고 전했다.

치평초 6학년3반 담임 김은희 교사는 “왜곡된 시선으로 5·18을 접하는 일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경험으로 학생들이 지금의 민주주의가 누군가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져 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월 버스는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광주 지역 학생 3천여명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연상 기자

비트코인 1천400여개 탈취…“거래소 운영자 가능” 주장

부녀 도박 사이트 수익금 은닉 재판서

별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고인 증언

자작극 취지…내달 20일 재판 속행

비트코인을 압수한 경찰이 이를 빼돌렸다는 등 수사 기관을 탈취범으로 지목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제3의 방법에 의한 피고인 측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5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녀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운영한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중 일부를 국내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딸 B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비트코인 1천400여개를 경찰이 가져갔다고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B씨의 부탁으로 사라진 비트코인 1천400여개의 행방을 추적한 적이 있었는데, 증인 출석 요청에 나름대로 이번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의 소행일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히 “비트코인 1천400여개가 있었던 지갑은 거래소의 성격도 있는 도박 사이트와 연결이 돼 있었다”며 “이번 탈취가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뤄진 게 아닌 운영자 측에서 한꺼번에 거래소를 통해 옮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 운영자 권한이 있으면 지갑에 걸려 있는 이체 제한을 풀 수도 있고 특정 주소의 접속 차단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의 증언이 기술적으로 사실이라면, 비트코인을 잃어버렸을 당시 “일일 제한이 있어 나눠서 옮기던 중 사라졌다”는 경찰의 입장에 힘이 실린다.

반면 B씨 측은 전문가가 아닌 만큼 C씨의 증언에 기술적 오류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이트를 운영했던 B씨 측의 자작극이라면 C씨에게 사라진 비트코인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A씨 부녀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며 또 다른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市교육청, ‘성희롱 발언’ 여고 교사 감사 착수

〈속보〉광주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본보 3월31일 6면 보도**)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신고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서면으로 제출한 신고인의 의견서와 피신고인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고 논의한 끝에 해당 사안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회의에는 위원 전원인 9명이 참석했다. 투표는 기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과반수 이상이 성희롱 사안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옥 기자

고용부, 계절노동자 26명 ‘임금 착취’ 추가 적발

브로커 2명·사업장 1개소 입건

노동단체 “전국 단위 수사 필요”

최근 고흥 소재 굴 양식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노동 당국이 총 26명에 대한 임금체불과 중간착취 사실을 추가 적발해 형사입건 등 조치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흥 지역 굴 양식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3천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브로커 2명이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약 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 절차 미이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파악했다.

고용노동부는 계절노동자 고용 취약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벌여 2천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 시정 조치했으며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단체는 이번 결과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특별근로감독으로 착취 실태가 확인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전국 단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찬웅 기자

완도 냉동창고 화재 ‘에폭시 작업자’ 구속

소방 대원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 당시 에폭시 작업을 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15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한 에폭시 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는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완진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을 끄러 들어간 소방 대원 2명이 고립돼 화마에 숨졌다. /안재영 기자